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 본말사 주지연수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월파)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설법전에서 본·말사 주지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1백20여 사



찰 주지(갑인)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통사찰보호법, 불교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교육원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강의와 포살법회, 종단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주제토론 등이 진행됐다.

대교종

봉원사 명부전 상량식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김대운)는 1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부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극락전 앞에 위치한 명부전은 40평 규모로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대운스님은 "명부전 건립으로 종단 중심사찰로서의 역할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 친선 체육대회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2일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참가 청소년 합동 친선체육대회를 열었다.

각 사찰 청년회원들의 친선 도모와 건전한 청소년문화 선도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는 안정사, 불광사 등 각 사찰 청년회원 1백50여명이 참가해 축구, 농구, 족구, 달리기, 발야구 등의 경기를 펼쳤다.

태고사 신도 성지순례

북한산 태고사(주지 김창양)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신도들을 대상으로 국내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성지순례단은 대구 것바위, 해인사, 봉도사, 남해 향일암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천태종

전국 청년회 단합법회

총무원(원장 문덕)은 8~9일 양일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청년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청년회 단합법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법회는 첫날 50여 개 지부별 장기지랑과 토론을 이어 둘째날에는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기록영화 관람과 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삼덕사 원통보전 낙성

충남 금산 삼덕사(주지 김세운)는 9일 원통보전 봉불식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중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윤덕스님과 종단간부, 지역내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원통보전은 2백10평에 2층 규모로 3년여 공사 끝에 완공됐으며, 80평 규모의 요사채도 이날 함께 완공됐다.

삼광사 신도회 창립28돌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일 대법당에서 신도회창립 2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덕수스님을 비롯해 문정수 부산시장, 하계열 진구문장 등 신도 2만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2부 예술제로 진행됐다. 예술제에서는 통국대 국악관현악단과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합동연주회와 15개 지회별 장기지랑이 펼쳐졌다.

진각종

5백여명 수계관정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10일, 11일 서울 탑주삼인당과 대구 희락삼인당에서 전기51년도 삼매야제단 보살심전계 수계관정불사를 각각 봉행했다.

계사는 증명아사리에 각해충인, 전계아사리에 도흔종사, 갈마아사리에 해일종사, 고수아사리에 지광종사가 맡았으며, 모두 5백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원흥종

동원불교대 1기 졸업식

동원불교대(학장 법장)는 12일 원흥사에서 제1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생은 20명으로, 전원이 종단소속 스님이다. 총무원장 보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발전은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며 "오늘 졸업식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자사행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부처님 고향에 심는 '자비'

'이웃을 돕는 사람들' नेपाल에 종합복지타운 기공

병원·법당 등 내년 11월 완공 직업훈련소도 마련 가난 퇴치

'부처님의 나라' नेपाल에 한국불교가 지원하는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선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부설 '이웃을 돕는 사람들(회장 송산스님)'은 14일 नेपाल의 수도 카투만주 바라주지역에서 직업훈련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복지시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Bihani Basi·비하니 바스티)' 기공식을 갖는다. 대지 1천6백여평 연면적 6백평의 3층건물로 들어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은 98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2억여원이 투자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이 종합

복지시설이 완공된 후 △직업훈련소 △무료급식소 △법당 △병원 △기숙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현지 빈민구제활동과 함께 미성, 전기배선, 컴퓨터 등의 교육을 통해 매년 1백20명씩 기술자들을 배출시킬 계획이다. 또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नेपाल 현지의 사정을 감안, 현지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할 '네팔 붓다서비스센터(이사장 크리스나 구름)'를 구성하고 5월 법인 등록을 마쳤다.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15명의 이사장으로 구성된 नेपाल 붓다서비스센터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해 한국어가 가능한 नेपाल인 4명과 함께 훈련소 교육 및 행정업무를 맡는다. 한편 3천여명의 회원들이 매일 2

천원씩 낸 후원금으로 부지매입을 마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건물 완공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 법당에 봉안할 '천 이백오십 아라한상' 조성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10월30일 이사회회의에서는 네

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12월 중순경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 위원회 부장은 "네팔사업추진위원회 내에 의약품, 생활용품, 1대1인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후원모임을 두고 불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종단 차원으로 네팔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이웃을 돕는 사람들 김동훈 이사장



"빈민구제 통해 한국불교 전할터"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의 의미가 큼합니다. -네팔인들은 '아침'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한국'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라는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의 설립 의미가 큼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만 사실상 नेपाल의 불교인구는 8%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직업이

없는 빈민자들입니다. 그동안 받은 것을 회향하는 한국불교 복지사업의 국제적 진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 설립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네팔에 한국불교를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무료급식 등 실질적인 빈민구제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네팔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각 스님 '서라벌 귀국'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스님(696~794)의 동상이 탄생 1천3백여년만에 고향인 경주 불국사에 봉안됐다. 지장보살 김교각상 한·중합동불안위원회(위원장 설조)는 4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청하(총도사 부부장), 인덕(중국 구화산 법장) 스님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관련인터뷰 4면>

전일본불교회 고베지진 희생자 추모

창립 40돌 맞아 '세계적 자원봉사단체' 선언

종파를 초월한 일본의 불교도 연합체인 전일본불교회(이사장 시로하타 노리유우)는 10월 16일 고베시 나가타리 문화체육관에서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94년 고베지진 희생자(6천5백여명) 추모를 결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추모법요식과 추모비 낙성식이 진행됐다. 특히 추모법요식에는 지진피해로 가설주택에 살고 있는

고베시민 5백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시로하타 노리유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에 대한 반성과 사명감을 재고하기 위해 고베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불교회의 활성화와 세계적 자원봉사단체로 성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대회에서는 '불교와 자원봉사'란 주제의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성도절 행사 연합법회 추진

대구사원연총회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3일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98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임원진 개편과 회칙개정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날 확정된 98년 사업계획(안)은 성도절 기념법회(11월6일 대구실내체육관), 달맞이 방생법회(2월11일 감포 나정해수욕장) 등이다. 개정 회칙은 본회의 회장과 임원회가 산하 법인인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의 이사장과 법인이사회를 각각 겸하도록 규정하여(12조, 18조) 불교회관건립등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부장급 임

원의 수를 축소조정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은 수석부회장 태일스님(동천사) 사무총장 해담스님(임유사) 등이다. 한편 사원들은 새회원으로 화성사(종목) 죽림정사(정우) 청룡사(덕혜)의 가입을 승인했다.

케이블TV 시청률 조사

15일까지 전국 8개지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는 불교TV를 비롯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15일까지 시청률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청률 조사는 서서울·수원·대구·동구 등 8개 지역방송국 관할 시청기구가 대상이다.

14년 연구끝 '금빛기와' 개발

경남 울주 오세필씨 구인사에 기와 공급

한 기와장(匠)이 14년간의 연구 끝에 금빛기와를 굽는데 성공해 화제다. 경남 울주군 온양면 동상리 동광기와 오세필씨(46). 4대째 기와를 이어가며 기와굽기 역량을 갈고닦아 오세씨는 84년 금빛기와 제작에 들어가 14년만에 성공했다. 오씨가 개발한 금빛기와는 점토로 만드는 일반기와와는 달리 백자제작용 흙에다 자체



개발한 유약을 사용, 1천2백60도 이상의 고열로 구워 금빛점이 피어나게하는 것이 탄생의 비결이다. 오씨가 생산한 금빛기와는 여름부터 구인사 조사전 신축공사에 사용되고 있다.

BBS 지방국 프로그램 부산 광주 등 3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불교방송 지방국들도 개편을 단행, 3일부터 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불교 부산 방송(FM89.9MHz)은 '우리들의 찬불가'(월~토 오전 8시55분) '추억의 음악산책'(매일 오후 3시55분)을 신설했고, 'BBS계사관'을 자체제작한다.

○... 불교 대구 방송(FM94.5MHz)은 '열린불교 지혜의 샘'(월~토 오후 3시55분) '음악의 마을'(매일 오후 4시10분) '시시매거진 2부'(월~토 오후 7시25분) '산사의 향기'(일 오후 3시55분) 등으로 단정했다.

○... '문화채널'을 표방한 불교광주방송(FM89.7MHz)은 생활정보·문화예술·여성생활마당으로 꾸며질 '빛과 열'을 1·2·3부(월~토 오후 3시55분)와 'BBS 뉴스 채널'(매일 오전 3시25분)을 신설했다.

○... 불교청주 방송(FM96.7MHz)은 생활불교 교리를 갈고닦는 '향기가 있는 찬불가'(일 오후 4시10분)를 신설하고 '라디오매거진'은 '유람선 전망대'(월~토 오후 4시10분)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해 방송한다.

백화사설초 약(藥)이 되는 신비한 약용식물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 예방, 각종 질병에 효과 입증



★ 특허출원 제 26218호

신비한 약초로 생약업계에서 구전되어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지난 93년부터 우리땅에서 재배가 이루어져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합암과 소염」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생약재 백화사설초를 직접 재배하고 양장시키고 있는 사람은 김나진자 사장과 공급에는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이다. 김나진자 사장은 30년간 청과물 도매업으로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으나, 오랫동안 객지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는 양의는 물론이고 한방병원까지 다녔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고통과 실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중 우연히 친척 동생으로부터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듣고 복용한 결과 혈액순환장애, 위장병, 각종 염증성 질환, 피부병, 마비증상등의 합병증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었다. 김사장 부부는 백화사설초의 덕택으로 모든 병들이 완전히 치료되어 새 생명을 얻고 이 사설초의 효능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유 불가능 선고를 받은 다른 환자에게도 권유 다른 약을 일절 쓰지않고 백화사설초만으로 꾸준히 병을 다스리며 치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회생하게 된 소식을 듣고 약초를 구입하게 된 사람들도 대단한 효과를 보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는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의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이 풀의 특징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항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힘의 탁월함에 있다. 백화사설초는 청열해독약(淸熱解毒藥)으로도 쓰인다. 「청열」이란 한량(寒凉), 약성(藥性)으로 체내의 이열(裏熱)을 내린다는 것이며, 「해독」이란 일반적으로 감염증의 발열이나 수반되는 병리변화 및 각종 독소로 인한 반응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백화사설초는 약성이 한량하다. 이 열을 내리고,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주며 독소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방용어로 청열·기어·소응·해독이라고 한다.

※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선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조차 치료약이 없다고 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독자와 약자』 동화문화사, 신재용 생활필서사에서)

■ 지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백화사설초를 복용하시어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특징 및 효능

이 풀의 특징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항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힘의 탁월함에 있다. 백화사설초는 청열해독약(淸熱解毒藥)으로도 쓰인다. 「청열」이란 한량(寒凉), 약성(藥性)으로 체내의 이열(裏熱)을 내린다는 것이며, 「해독」이란 일반적으로 감염증의 발열이나 수반되는 병리변화 및 각종 독소로 인한 반응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백화사설초는 약성이 한량하다. 이 열을 내리고,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주며 독소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방용어로 청열·기어·소응·해독이라고 한다.

각종문헌에 나타난 효능

- ◎ 합암본초(상인의 편저, 김수철 역주) 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묘약기방(조규형 저, 법진문화사) 간염, 장염, 요초감염, 맹장염, 편도선염, 인후염, 각종 증기, 타박상, 위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암, 방광암
◎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신재용 생활필서) 간염, 장염, 요도염, 인후염, 급성 충수염
◎ 백화사설초(진촌인 저, 동도문화사) 신재용 생활필서) 급성 충수염

■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원영재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 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해박사 성환철

금강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신농산 (051) 465-5100, 467-5200